

# “남구발전 위해 달린 뜨거웠던 4년”

세월호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개 안전 심사

## 남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6대 의사일정 마무리

남구의회(의장 박영근)는 제226회 임시회를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 했다. 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5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 전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묵념으로 임시회를 열었다. 이어 제2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4월 30일 2개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손에취)는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등 5개의 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호)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제1,2차 본회의를 통하여 활발한 의원 5분 자유발언 시간도 가졌다. 1차 본회에서 김병태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남구 재난안전관리 실태’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진호 의원과 박기홍 의원이 각각, ‘낙후된 문헌동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와 ‘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지지’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사퇴를 맡은 이명규 부의장은 “지난 4년간 제6대 남구의회는 의원들간 서로 마음을 모아 열심히 활동하였고, 때론



제226회 임시회 첫날 남구의회 의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의견차이로 인한 반목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지역발전과 남구민의 삶을 위한 열정이라고 믿는다. 여러 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끝으로 제6대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세부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제정조례안(원안가결)**

—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글의 보존·계승과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사업을 반영한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늘림으로써 공무원의 총정원

을 조정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관련 세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남구 웹메일시스템 이용률 감소에 따른 운영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7. 22.)」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3. 7. 22.)」 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확대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원안가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오륙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정(2013. 9. 1.)으로 간관의 총수량, 표시방법 등이 시(市)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區)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區)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함.

## 5분 자유 발언

제2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김병태 의원은 남구의 재난안전관리 실태 점검·보완, 이진호 의원은 돌산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착수, 박기홍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남구의회도 지지해야 하다는 발언을 했다.

## “세월호 참사 같은 재앙 근절 위해 맞춤형 남구 재난대책 점검·보완”

김병태 의원  
(대연 1·4동)



김병태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남구도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태 의원은 울초에 일어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과 평소 관리감독의 부실, 초동대응의 실패, 위기관리지휘체계의 부재 등이 단골 원인이었다고 지적한 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수습에만 급급할 뿐 빠지린 반성도 교훈도 얻지 못해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우리 남구도 재난 안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태 의원은 “실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지시 의존적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제2의 세월호 참사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맞춤형 남구 재난안전관리 대책 보완을 주문했다. 이번 대점사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란과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남구도 재난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진단, 보완해 재앙이 닥쳤을 때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전도시시가를 안전도시국의 선입과로 하는 조직 개편 검토 △생활 속 안전사고 관심제고 및 예방기능 강화 △공직자 안전기강 확립 등을 주문한 김병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의 총체적 부실 앞에서 누구를 탓하기 앞서서 우리 모두가 자기성찰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돌산마을 주거개선사업 속도를 문헌동 일원에 편백나무숲 조성”

이진호 의원  
(문헌 1·2·3·4동)



이진호의원은 문헌금융단지 주변 지역 돌산마을의 지리부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문헌동 방향 황령산 기슭의 생태계 복원 및 중단된 배수로 공사과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이진호 의원은 “올 하반기 문헌금융센터가 완공되고 10월부터는 부산 은행 본점, 농협부산본부, 한국거래소, 한국남구발전, 한국에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공사, 한국자산공사, 한국주택보증공사, 한국자산공사, 한국주택보증공사 등이 입주하는 등 문헌금융단지의 제 모습을 갖춰 가는 반면에 문헌동 23-1번지 일대(돌산마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가 사업비 1378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709세대를 2016년 보상,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공제가가 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과 빈 집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공유지 변상금이 매년 부과돼 마을사람들의 체납으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관계 부서가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진호 의원은 황령산 바깥과개부터 문헌동 입구까지지는 잡나무원 무성하고 일부 나무들은 고사하고 있다며 문헌동 방향 황령산 자락에도 잡나무를 없애고 편백나무를 식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령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문헌동 515-5번지 일원에 무단경작과 야적장을 철거하고 주택과 주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황령산의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중단된 배수로 공사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문헌동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을 위해 신19번지부터 20번지 일원 공영묘지의 320여 기의 분묘를 이장해 주민들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축구장과 운동기구, 편의시설이 들어선 체육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흡연으로 천문학적인 진료비 지출 담배소송에 남구의회도 힘 보태야”

박기홍 의원  
(대연 3·5·6동)



박기홍 의원은 근래 사회적 화두가 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피해의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에 사건에 대해 남구의회도 소송추진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소송지지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기홍 의원은 이번에 피소된 국내 담배제조회사 3곳 중 KT&G의 주주 구성을 두고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60% 가까이 사실상 외국기업이나 다름 없다”며 “KT&G는 높은 수익을 올려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과 주주에게 높은 배당을 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며 비판했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92~1995년 사이 일반건강검진 받은 공무원과 일반사립학교 교직원 30세 이상 피보양자 약 130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의 발생률을 보였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은 2.9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했다.

박기홍 의원은 또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 한해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 173만 명 중 절반을 구제 할 수 있고 선택 진료료소와 상급병실 급여화를 할 수 있고 재정 추가 투입없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액수”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 제기를 적극 호소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으므로 담배소송에 지자체가 힘을 보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남구 의회차원에서 소송추진 결의안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태 의원, 하승보 세무사, 손상근 전 동장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남구의회는 제226회 임시회 첫 날인 지난달 30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남구의 예산집행에 대해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책임감사위원에는 대연 1·4동 출신인 김병태 의원이



김병태 의원



하승보 세무사



손상근 전 동장

감사위원에는 하승보 세무사와 손상근 전 감란1동장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은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 김광명 의원 ‘한글사용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가결



김광명 의원 등 11명의 남구의원들은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글의 보존·계승과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5년 마다 한글사용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을 이문규 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며,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도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원안가결 됐다.

## ■ 사 진 으 로 보 는 의 정 활 동



총무위원회 안전심사 지난달 30일 열린 총무위원회(위원장 손에취)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등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안전심사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지난 8일 대연동 용소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어린이 의회 교실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4년 상반기 어린이 의회교실 마무리

남구의회(의장 박영근)는 지난 4월부터 4개 학교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관내 분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우암·용소·용산 초등학교 학생 32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조례안 제정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반기 어린이 의회교실을

마쳤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의회교실은 매년 1회 학교가 신청하고 있으며 그동안 2,210여명이 참가했다. 하반기에도 용당초등학교 등 3개 학교 230명의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경험할 예정이다.

## 의회 자치법규

의료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희생정신 발휘한 남구주민 위해 제정

이번호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운 행등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등은 가족의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으로써 의료운 구민의 송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의사상징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의료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용받지 아니한 자등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물질만능주의의 현대사회에서 의료운 행위를 한 구민에 대한 송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규정 전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bsnamgu.go.kr)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의 “제9편 주민지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당해 지자체의 시책 등에 대하여 5분 이내에서 의견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 집행기관 집행인사 안전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이 의회 및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의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르며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발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 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주민 관심사안에 자유롭게 의견 제시

의장에 미리 신청 5분 이내 발언 기회

## 의회상식-5분 자유 발언

## “남구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의회사무국 (☎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